

# 불교와 자유학예교육

홍성기\*

- I. 서론
- II. 자유학예의 사회적 조건
- III. 자유학예와 기독교 그리고 과학혁명들
- IV. 연기설의 이해와 자유학예와의 연계
- V. 연기와 자유학예교육의 연계
- VI. 결론

## ■ 국문요약

자유학예(liberal arts)<sup>1)</sup>의 기원은 고전 그리스·로마로서 서양의 고등교육 전통에 속한다. 또 중세 이후 자유학예의 명맥은 기독교에 의해 유지되어왔다. 12세기 설립된 파리대학에서 자유학예 특히 철학은 신학을 위한 중요한 기초 과목이었으며, 이후 오랫동안 자유학예는 기독교와 불가분의 관계에 놓이게 된다. 이점은 영어권에서 자유교육에 대한 중요한 기여를 하였던 19세기의 뉴만 역시 카톨릭 추기경이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종교로서 불교와 자유교육 혹은 자유학예와의 연계 시도는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

---

\* 아주대학교 다산학부대학, 명예교수, ajouphil@ajou.ac.kr

1) 이 논문에서는 불교를 학문의 토대로서 자유학예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관련된 자유교육(자유학예교육)과의 연계시킨다. 따라서 때로는 자유학예, 때로는 자유교육이 언급되더라도 이것이 용어의 혼란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란다.

나 17세기와 20세기의 과학혁명 은 신학을 위하여 혹은 신학을 중심으로 자유교육을 조직하려던 시도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게 만들었고, 20세기 초 출현한 양자역학에 대한 불교적 해석이 21세기에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특히 이런 시도는 표피적 유사성이 아니라 존재의 관계론적 구조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종교와 철학, 예술과 삶의 방식으로서 불교가 아니라, 과학의 토대로서 불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학문의 토대로서 자유학예의 역할과 과학의 정초로서 불교의 역할이 연계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철학으로서 불교가 인문학으로서 자유학예에 속할 수 있음도 분명하지만, 불교의 핵심교리인 연기설에 대한 이해와 그 교육학적 확장은 어찌면 불교와 자유학예와의 관계가 역전될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다. 즉 생·노사를 벗어나기 위한 석가모니의 사유는 존재 자체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개념들에 대한 비판 및 인간의 조건들에 대한 성찰을 포함하고 있어, 통합적 교육을 강조함과 아울러, 단순히 지식의 획득으로서 교육에 대한 비판을 함축하고 있다. 여기서 불교가 자유교육의 통합적 성격을 정당화할 수 있는 내적 구조를 갖고 있음을 명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주제어 ● 불교, 연기설, 자유학예, 자유학예교육, 통합교육

## I. 서문

불교와 자유학예를 학교 차원에서 연결시킨 사례는 없지 않다. 태국의 마하출라롱콘라자위달라야(Mahachulalongkornrajavidyalaya) 국립불교대학은 서양 전통의 자유학예와 동남아시아의 전통적인 불교학 교육과정의 18개 교과목을 비교시키면서, 자유교육의 전통이 동서양 모두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sup>2)</sup>

---

2) “Liberal Arts: Meaning , Scope and Origin”, <<https://www.mcu.ac.th/article/detail/35380>> (2023.12.01.)

1976년 중국의 宣化禪師에 의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주에 설립된 Dharma Realm Buddhist University는 소규모 사립대학으로서 “지식과 함께 모든 개인의 내면에 지혜를 활성화한다”<sup>3)</sup>는 교육목표를 갖고, 동양과 서양의 전통을 바탕으로 자유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대만의 聖嚴法師는 1985년 中華佛學研究所를 설립하였고, 이 연구소는 이후 학부와 대학원 과정이 있는 法鼓文理學院(Dharma Drum Institute of Liberal Arts)으로 발전하였다. 즉 불교대학의 교명에 ‘자유학예’를 언급하고 있다.<sup>4)</sup>

이 글에서는 불교와 자유학예와의 연결을 불교의 핵심 교리인 緣起說과 연기에 개입된 인간의 조건에서 찾고자 한다. 인간이 생물학적 존재를 유지하기 위한 조건은 동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따라서 굳이 인간의 조건이라고 부를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 글에서 인간의 조건은 모두 심리적 혹은 정신적 행위로서, 기억, 감정, 욕망, 언어, 예측, 믿음, 이성과 논리 등이 그 예들이다. 불교의 기본 입장은 인간의 조건이 바로 나를 포함한 주변세계의 사물을 구성하며, 동시에 동일한 인간의 조건이 고통의 원인이라는 데에 있다. 따라서 불교적 관점에서 모든 존재는 조건 지워진 것이고, 이점을 잘 이용하면 과학의 정초로서 양자역학이 요구하는 미시세계에 대한 존재론을 불교 즉 연기가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즉 학문의 토대로서 자유학예의 역할을 불교가 담당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불교가 볼 때 인간의 핵심 문제는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의 조건을 제어하는 것, 전통적으로 ‘수행’이라고 부르는 교육적 측면을 갖게 된다.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지만, 동시에 고통의 원인을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조건이라는 점에서 논리적으로는 자기부정으로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선종이 강조하는 ‘不立文字’는 언어를 통한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부정하지만 ‘불립문자’ 역시 하나의 문장

3) “Liberal Education at DRBU”, <<https://www.drbu.edu/academics/our-philosophy-education/liberal/>>(2023.12.07.)

4) 학부과정은 전공과 교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양 교육과정은 일반 교양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 <<https://en.bs.dila.edu.tw/undergraduate-program-學士班/>>(2023.12.07.)

이다. 여기서 불교 수행의 핵심 개념인 무념이 갖는 이중적 성격이 드러나며, 바로 이 무념을 자유교육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논문은 불교와 자유학예의 통합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 II. 자유학예의 사회적 조건

어떤 면에서 자유학예는 모든 종교, 모든 사상과 연계가 가능하다. 특히 전통적으로 서양의 자유학예의 원형으로 간주되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의 3개의 길(trivium)과 산수, 기하학, 음악, 천문학의 네 개의 길(quadrivium)은 모든 학문과 사상을 공부하기 위한 기초과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동남아시아의 불교학 교육과정의 18개 교과목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다.<sup>5)</sup> 현대에 와서는 자유학예를 인문학과 예술, 사회과학, 자연과학에 국한시키고 있지만, 자유교육을 교육의 영역이 아니라 방법론과 연계시키는 경우도 있다.<sup>6)</sup>

다른 한편 자유학예를 넘어 서양의 고등교육과 대학의 역사를 살펴볼 경우, 우리는 두 개의 중요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신중호 외, 2022, 17-54, 212-262)<sup>7)</sup> 그것은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이 경제적이거나 비경제적인 사회

---

5) 앞의 태국 국립불교대학의 홈페이지에 열거된 18개의 과목명은 다음과 같다.

1. general subjects or knowledge, 2. custom-knowledge, 3. **mathematics**, 4. technics, 5. law, 6. the knowledge for auspiciousness affairs, 7. dramatics, 8. physical education or knowledge for building the physical strength, 9. arrow-shooting or subject on how to shoot the arrow, 10. archaeology, 11. medicine, knowledge for curing the patient, 12. legend or history, 13. **astronomy**, 14. art of war, 15. poetry, 16. **rhetyory**, 17. magic or knowledge for magic spelling, 18. **grammar**

6) 자유학예를 특정한 교과목의 모임으로 보는 관점과 교육의 방법론으로 보는 방법이 대립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영국의 Newman(2008), 미국의 Rothblatt 교수(2003) 그리고 근자에 부산외대의 박병철 교수가 자유학예에 대하여 자유롭게(liberaly) 가르치고 배우는 모든 영역이라는 방법론적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박병철, 2022, 2023, 15-16)

7) 서양의 고등교육과 대학의 역사를 공부하는 모임에서 정리한 ‘대학 변화의 준거틀을 만들기 위한 21개의 대학의 역사 에피소드’가 위 연구보고서의 부록으로 첨부되어 있다.

적 수요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회적 수요에 대하여 대학교육이 대응하지 못할 경우 대학은 그 존립의 물질적, 사회적 토대를 잃어버린다. 그러나 대학이 사회적 수요 충족만을 목표로 할 경우 대학은 아우라를 잃고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한다. 유럽대학이 17-18세기에 그 수준이 최하로 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이럴 경우 대학 밖의 기관이 사회적 수요, 예를 들어 직업교육에 대응할 수도 있다. 즉 대학은 지적 기관으로서 진리의 탐구라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sup>8)</sup>

학생과 교수로 구성된 대학이 만족시켜야 할 두 가지 의무에서 자유교육도 자유롭지 못하였다. 고전 그리스 시대에 자유교육은 직접 민주정이 요구하는 자유시민들 간에 설득의 기술로서 수사학을 강조하였고, 이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소피스트는 그리스 민주정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의해 출현하였다. 또한 19세기 자연과학의 발전과 과학과 산업혁명이 서로 손을 잡고 확대되면서 자연과학의 세분화가 불가피하였을 때, 영국의 전통적인 인문·고전 교육 기반의 옥스브리지도 교육과정에 자연과학의 도입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다. 영국의 칼리지를 모형으로 설립된 미국의 대학에도 자유학예로서 새로운 과학이 도입되었다.

다른 한편 사회적 요구로서 ‘설득’이라는 행위는 ‘어떻게 마음먹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줄여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정당화의 요구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예를 들어 민주정에서는 설득과 선동의 차이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 필요하며, 소크라테스 등 철학자들은 옳은 행위의 전제가 진리의 확인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자유학예의 역사를 탐구한 미국의 학자 킴벌이 자유교육의 두 전통을 언어를 통한 소통을 강조한 연설가 전통과 진리를 탐구하는 철학자 전통에서 찾은 것도 고등교육에 대한 두

---

8) 이러한 결론은 대학 이외에 아카데미나 연구소 등이 진리 탐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기관들은 일반적으로 교육 기능을 갖고 있지 않다. 즉 학문 후속 세대의 교육을 수행하는 대학에 진리탐구의 역할은 필수적이지만, 오류의 배제라는 관점에서는 학부만이 있는 교육 중심 대학이더라도 진리탐구는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오류의 배제는 일상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까지 요구에서 출발한다고 볼 수 있다.(Kimball, 1986) 또 전형적인 직업교육학교로 출발한 유럽의 공학전문학교들도 처음에는 자유학예와는 담을 쌓고 공장 현장의 경험적 지식을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지만, 체계적인 공학 교육과정을 만들기 위해 진리탐구를 목표로 하는 자연과학 즉 자유학예의 도입을 피할 수 없었다.(Torstendahl, 1993, 109-141) 나아가 진리를 탐구하려면 그 대상의 존재에 대한 정당성 확인이 필요하며, 전통적으로 이런 탐구를 형이상학, 존재론이 수행했다. 만일 불교가 자유교육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바로 사회적 요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과, 자유학예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제반 학문이 요구하는 ‘존재의 정당화 문제’에도 답해야 한다.)<sup>9)</sup>

### III. 자유학예와 기독교 그리고 과학혁명들

자유학예를 불교와 혹은 불교를 자유학예에 연계시키기 전에, 우리는 역사적으로 자유학예와 기독교의 밀착과 분리에 대하여 잠깐이라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밀착은 기독교의 관점에서 일어났지만, 분리는 과학의 관점에서 일어났기 때문이고, 바로 이 과학이 현재 불교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로마가 초기 기독교를 탄압하였으나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 기독교를 공인하였다. 기독교도들은 오랜 기간 로마의 공식 교육과정이었던 자유교육<sup>10)</sup>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원래 수사학 교수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유학예를 기독교 신앙을 위한 수단으로서 받아들인 이후<sup>11)</sup> 기독교와 자유학예는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다. 476년 서로마

9) 뒤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불교는 이 두 요구를 연기설로 해결한다.

10) 역사적으로 문헌에 ‘자유학예(artes liberales)’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로마시대였다. 물론 기록된 용어의 출현과 자유학예의 기원을 동일시할 필연성은 없다.

11)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는 서기 396년에 ‘기독교 교육에 대하여(De doctrina Christiana)’의 책 1권에서 3권까지를, 426년에 책 4권을 저술하였다. 이 책은 자유학예가

제국의 붕괴 이후 황폐화된 유럽의 교육제도 속에서 자유학예의 맥을 근근이 보존한 것은 일부 수도원의 도서관이었다. 또 9세기에 종교인 중에도 문맹이 많았던 중세의 지적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샤를마뉴대제는 교황과의 연대 속에서 알킨(Alcuin) 같은 학자들을 공정으로 불러 자유학예의 부흥을 꾀하였고, 이를 통해 육성된 교사 계층이 이후 12세기 파리대학의 출현에 영향을 끼쳤다.(신종호 외, 2022, 226-232)

12-13세기 이슬람 문명권에 보존되어 유럽대륙으로 역번역된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들이 기독교와 습합되고, 아퀴나스에 의해 기독교 신학의 정교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7세기 과학혁명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것은 15-16세기에 대학에서 자유학예가 신학, 법학 및 의학이라는 상위학부의 준비과정에서 탈피하고 독자적으로 연구되면서, 기존의 스토리텔링 위주의 과학과는 달리, 종교나 철학이 개입하기 어려운 실험과 관찰이라는 독자적 검증 방법을 도입하였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자연과학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의 붕괴 조짐이 있다고 해서, 삶의 방식으로서 기독교적 윤리가 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니다. 실은 기독교가 강조하는 수많은 윤리적 덕목은 여타 종교나 비종교적 윤리에서도 공유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윤리적 덕목, 예를 들어 자비나 이웃 사랑이라는 윤리적 덕목의 근거가 무엇인가라는 점이다.

20세기 초 다시 한번 과학혁명이 서구의 지성계에서 일어났다. 그것은 양자역학의 등장이다. 17세기 과학혁명이 기독교적 세계관이 선호하던 천동설 대신 지동설을 주장하였다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식 세계의 존재

---

기독교 교육에 일정 부분 필요함을 정당화한 가장 권위 있는 문헌으로서, 이후 중세에 자유학예의 보존과 함께 대학의 출현 이후 그 교육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수사학 교수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리스 파이테이아 혹은 자유학예의 주요 분과인 논증술로 좋은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지만, 틀린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즉 올바른 전제들과 타당한 논증을 통해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만, 논리학은 형식과학이므로 ‘올바른 전제의 제시’ 즉 ‘진리의 발견’은 자유학예나 또는 이교도 문화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기독교만이 제시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우위에 대한 이 논증 역시 그 전제가 옳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음은 물론이다.”(신종호 외, 2022, 225-226)

론이 무너진 것은 아니었다. 또 운동의 상대성을 이해하면 사실 천동설이나 지동설은 어느 하나가 옳다고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양자역학이 무너뜨린 것, 혹은 양자역학과 정합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상식 세계의 모습이다. 주변 세계에는 나를 비롯하여 여러 독립적인 사물들이 있고, 이 사물들 간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낯익은 인과관계에 의한 결정론이 통용된다. 고전 역학이 당연시하던 상식 세계의 형이상학, 존재론이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미시세계에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왔다. 이것은 양자역학의 초기에 관찰되지 않은 존재에 대한 언급의 무의미성을 강조한 덴마크의 보어와 독일의 하이젠베르크가 중심이 되어 만든 코펜하겐 해석으로서, 보통 양자역학에 대한 표준적 이해로 간주되고 있다.

미시세계에서 존재에 대한 언급에 관찰이 필수적이라는 관점을 더 확대하여 양자역학을 존재의 관계론적 구조로 확장 해석한 일련의 물리학자들이 출현했다. 이른바 관계적 양자역학(RQM: Relational Quantum Mechanics)이 그것으로서, 미국의 물리학자 핑켈슈타인(Finkelstein, 2003),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빗볼(Bitbol, 2019, 93-117),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로벨리(Rovelli, 1996, 2018, 2021)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들은 RQM과 불교의 연기설과의 구조적 유사성에 관심을 갖고 특히 龍樹의 中觀思想에 주목하고 있다. 또 오스트리아의 실험물리학자로서 2023년 다른 2명과 함께 얽힘 현상에 대한 연구 업적으로 노벨물리학상을 받은 안톤 자일링거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 물리학과 불교와의 대화를 시도하여 왔다.(Zeilinger, 2004) 즉 양자역학과 불교와의 대화는 이제 단순히 피상적 유사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연기론 즉 상식 세계의 존재론 비판과 양자역학의 세계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 양자역학이 기술하는 미시세계를 상식 세계의 모습과 정합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다. 예를 들어 다세계해석(many worlds interpretation)이라는 것이 제안되었다. 이처럼 자연과학의 한 이론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 것은 물리학자들의 단순한 생각에 기인한다. 양자역학의 수학적 기술은 그대로 두고, 또한 물리학 이론으로서 갖는 설명과 예측력도 그대로 두면서 이

기술과 모순되지 않는 한 여러 가지 해석을 도입해도 무방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 해석들이 지불해야 할 값이 무엇인가에 따라, 즉 물리학자 혹은 철학자들의 기호에 따라 선택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만일 다세계해석처럼 수많은 세계의 존재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정당화 비용(부담)이 상식 세계의 존재론을 포기하는 것보다 싸다고<sup>12)</sup> 생각한다면 이런 괴이한 세계관도 수용 가능하다고 일부 물리학자들은 본다.

이제 양자역학의 등장으로 분명해진 존재의 정당화 문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너도 따로 있고 나도 따로 있고 주변에 사물도 따로따로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상식 세계의 형이상학을 계속 옹호하기 위해서 수많은 ‘세계들’ 도입에 따르는 정당화 문제에 눈을 감거나, 아니면 상식 세계의 따로따로 존재론을 부정하면서 동시에 상식 세계를 관계론적으로 재구성(reconstruction)<sup>13)</sup>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이다.

12) 다세계이론을 양상 논리(modal logic)의 해석과 연관된 가능세계(possible worlds)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주사위를 던지면 1에서 6중 하나가 나올 확률은 1/6이다. 상식적으로 6개의 가능성이 있지만, 누구나 주사위를 던지는 우리가 존재하는 세계는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능하다’는 표현을 해석하기 위해 가능세계라는 개념을 도입하는 철학자 일부는 각각의 가능성에 대응하여 6개의 실제 세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다른 한편 양자역학에서는 입자나 파동의 위치와 운동량에 대해 확률적으로만 예측이 가능하다. 이때 다세계이론 옹호자들은 양자역학의 수학적 공식에 의해 계산되는 수많은 확률, 즉 가능성들에 대응하는 수많은 세계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한 물체는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위치에 특정한 운동량을 갖고 움직인다’는 상식적 형이상학을 살리기 위해서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상식 세계의 존재론은 미시세계에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존재의 도입은 단순히 그 유용성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격대비만족도’라는 비유가 등장한다. 실제로 다세계해석의 옹호자인 바이드만은 이 해석이 “가장 경제적인 양자이론”(the most economical quantum theory)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Vaidman, 2022, 264)

13) 재구성은 철학에서 구성주의(constructivism)의 방법론으로 사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유한한 절차를 거쳐서 어떤 존재가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때에 한하여 구성주의는 존재 도입을 허용한다. 그러나 재구성은 이보다 더 강력한 쓰임을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인간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어떤 존재론적 허구를 가정하여 현실 세계가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인간이 실제하는 세계로 간주하는 현실이 허구임을 재구성할 수 있다. 석가의 십이연기가 바로 無明에서 시작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따라서 이런 종류의 재구성이다.

#### IV. 연기설의 이해와 자유학예와의 연계

오랜 기간 여러 지역에서 발전해온 불교는 다양한 유파와 방대한 문헌을 만들었다. 따라서 같은 불교에 속한 유파라고 해도 그 종지가 마치 다른 사상이나 종교처럼 보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상식적인 심신의 존재들을 대거 인정하는 說一切有部와 모든 종류의 존재를 논파하는 中觀思想은 불교에 접근하는 방식과 깊이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모든 불교의 유파들이 인정하는 불교의 핵심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연기설<sup>14)</sup>이다. 석가는 연기설을 두 가지 형식으로 설하였다. 하나는 존재의 의존 구조를 기술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연기공식’이라고 부르기로 하자, 다른 하나는 인간의 대표적인 고통인 늙음과 죽음을 재구성한 것으로서 흔히 ‘十二緣起’라고 부른다.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此有故彼有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한다. 此生故彼生.  
 이것이 없음으로 저것이 없고, 此無故彼無,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此滅故彼滅.<sup>15)</sup>

여기서 ‘이것’과 ‘저것’은 ‘ $x+y=y+x$ ’라는 수학의 교환법칙에 사용되는 ‘ $x$ ’와 ‘ $y$ ’와 같은 변항(variable)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변항에는 인식주체와 인식대상, 감각기관과 감각영역, 원인과 결과, 전체와 부분 등등 무수히 많은 개념쌍들이 대입될 수 있다. 이처럼 연기 관계에 놓인 한 쌍의 개념들<sup>16)</sup>, 존재들은 서로 독립적이지 않으며, 어떤 전체를 특정한 관점(perspective)에서 서로 다른 유형(相, object-scheme)에 속하는 부분들로 분할할(partition) 때 서로 의

14) 緣起는 산스크리트어로 pratītya-samutpāda라고 부르는데, ‘pratītya’의 사전적인 뜻은 ‘의존하다’이고 ‘samutpāda’의 의미는 ‘발생하다’, ‘생겨나다’이다. 연기의 영어 번역은 ‘dependent origination’이다.

15) 『잡아함경』 335 『第一義空經』, 동일한 구절들을 『잡아함경』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16)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이런 개념 쌍을 待對라고 불렀다. 예를 들어 陰과 陽은 待對이다.

존하여 생성된다. 이런 분할 행위는 불교에서 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 언급되는 분별지(分別智)를 의미한다. 따라서 불교의 세계관은 서로 독립적인 원자들이 조합(configuration)되어 사물을 구성한다는 원자주의가 아니라 전체가 분할될 때 사물이 구성된다는 全一論的(holistic)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불교는 인식주체와 독립적인 주변 세계의 사물들이 실재론자의 주장처럼 단순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식주체의 정신 행위가 이 세계에 개입하여 구성한 것이라고 본다.

문제는 인간의 분할 행위가 모순적이라는 사실이다. 분할된 부분은 분할과 동시에 생겨났다는 점에서 상호의존적이나, 이런 분할 행위를 하는 인식주체에게 이 부분들은 서로 다른 사물 유형이다. 이때 ‘서로 다르다’의 의미는 하나가 없이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있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경우를 말한다. 中觀學派의 불교 논사 龍樹(Nāgārjuna)는 이 두 측면을 그의 『中論頌』에서 동일성(一)과 상이성(異) 간의 모순으로 드러냈다. 바꿔 말해 존재의 연기적 의존구조는 그 자체의 내적 모순으로 정당화될 수가 없다. 흔히 석가가 설파한 연기를 존재의 상호의존 구조를 의미하는 ‘좋은 견해’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연기는 중생들이 자신과 주변 사물들을 ‘서로 분할하여’ 만들어 내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없지만, ‘중생들이 자신과 주변 사물들을 서로 분할하여 만들어낸다는 것’은 사실이라는 점에서 옳은 견해이다. 석가는 연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점을 바로 위의 연기 구절에서 ‘이것이 없으면(별하면) 저것이 없다(별한다)’라는 존재 소멸의 구조를 삽입함으로써 분명히 밝혔다. 만일 연기적 존재(緣起法)들이 실재한다면 이런 소멸의 공식은 불필요하고 또 불가능하다. 이처럼 존재가 쌍으로 소멸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연기 내부의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상호의존적으로 생성되는 존재란 인간의 망상에 불과하다.

전체의 분할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이중적 관계가 만들어내는 모순은 그 대로 ‘경계의 불가능성’으로 그대로 옮겨질 수 있다. 왜냐하면 분할이란 경계를 긋는 것이기 때문이다. 경계란 두 사물이 한 곳에서 동시에 만나야 하지만, 서로 다른 두 사물이 한 곳에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만약 두 사물이 한

곳에서 동시에 만나지 않는다면 그곳은 경계가 아니다.<sup>17)</sup>

나아가 경계의 문제는 곧바로 연속의 문제와 직결된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사물이 연속한다는 것은 두 사물이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그것은 경계의 경우처럼 불가능하며, 만일 서로 다른 사물이 ‘만나지 않는다’ 이들은 연속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사물은 나눌 수도 없지만, 나누어진 사물을 다시 붙일 수도 없다.<sup>18)</sup> 그러나 인간은 나눌 수 없는 세계를 분할하고, 또 독립적이라고 상상된 사물들 간에 필연적 관계를 맺으려고, 즉 하나로 붙이려고 노력한다.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무명으로서 十二緣起의 시작이다.

싯타르타의 출가 동기는 生老病死를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서 인간은 물론 모든 생물에게 생로병사가 피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를 벗어나려는 노력 이 무모한 것임은 명백하다. 실제로 역사적 인물 석가모니 역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생로병사의 주체가 시공에 연장된 개체이고, 개체의 도입에 인간의 정신적 행위가 개입되며, 바로 이 인간의 행위가 조정가능하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석가는 생로병사의 주체인 개체가 단순히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 행위, 혹은 인간의 조건이 여러 단계<sup>19)</sup>를 거쳐 만든 구성물이라는 점에 있음을 다음의 순서로 재구성하였다.

- ① 무명(無明), ② 행(行), ③ 식(識), ④ 명색(名色), ⑤ 육처(六處), ⑥ 촉(觸), ⑦

---

17) 레오나르도 다 빈치도 경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였다. “두 물체 사이에 놓여진 어떤 물체는 그들의 접촉을 방해하지만 물과 공기는 어떠한 매개도 없이 서로 접촉하기 때문에 공기도 물도 아닌, 그러나 실체가 없는 공통된 경계가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MacCurdy, 1938, 75-76) 그는 이 경계를 무(nothingness)라고 불렀다. 사물의 표면은 사물과도 다르고 주변의 공기와도 다르지만 이 무와 접친다는 것이다.

18) 영국의 D. 흄이 발견했다고 하는 귀납추론의 문제(induction problem), 혹은 인과관계의 필연성 확보 실패는 실은 서로 독립적으로 도입된 사건 유형 간에 필연적 관계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연속과 관련된 대표적 난제는 실수 체계의 도입이다. 실수 체계에서는 자연수, 정수, 유리수 체계와는 달리 서로 다른 수들이 연속적으로 열거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실수의 도입을 증명하려는 시도는 독일의 수학자 데데킨트 등에 의해 시도되었으나, 그 증명은 모두 순환논증에 빠져 있음을 보일 수 있다.(홍성기, 2006)

19) 이때 단계란 조건과 조건 지워진 것, 즉 연기 관계를 의미한다.

수(受), ⑧ 애(愛), ⑨ 취(取), ⑩ 유(有), ⑪ 생(生), ⑫ 노사(老死)

위에서 무명을 시작으로 10단계를 거쳐 생로병사의 주체인 有, 즉 개체의 구성에 이르고 생과 노사는 바로 有가 있어야 가능함을 밝히고 있다. 이제 12단계의 과정을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 無明: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분할과 경계 긋기에 의해 생성되는 존재 구조에 대한 무지, 즉 무명으로부터 시작되는 십이연기에 대한 무지, 즉 무명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이다.<sup>20)</sup>

② 行: 무명을 조건(緣)으로 하는 인간의 행위(신체, 언어, 마음)로서 그 결과가 기억되어 식의 조건이 된다.

③ 識: 행위를 조건으로 하여 감각하고(眼識, 耳識, 鼻識, 舌識, 身識), 기억하고 상상하며 예측하는 意識을 말하며, 다음 명색의 조건이 된다. 이때 식은 ‘의식될 수도 있지만’, 의식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불교의 唯識論에서 제8식이라고 부르는 기억의 모임이 바로 의식되지 않는 그러나 분명히 기능하는 식으로서 ‘藏識’이라고 부른다.

④ 名色: 식에 기억된 사물의 이미지(相) 및 언어에 의해 구성되며, 감각기관에 의해 접근 가능한 구체적(色), 혹은 이름을 통해서만 접근 가능한 추상적(名<sup>21)</sup>) 사물 유형을 의미한다. 특기할 점은 식과 명색은 빈터에 서로 의지하여 서 있는 갈대와 같다는 석가의 비유이다. 이것은 인간 식에 기억된 相이 외부의 대상을 특정한 사물 유형으로 인식하게 만들고, 역으로 외부의 새로운 사물 유형이 식 속의 相을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사과에 대한 식 속의 相을 토대로 외부 세계의 어떤 사물을 ‘사과’라고 인식하며, 동시에 새로이 ‘사

---

20) 이는 더 이상 언어에 의한 무명의 이해에 한계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무명을 벗어난 상태를 체험해야 무명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쉽게 말해 음식에 대한 설명이 길고 정교하여 일종의 맛의 그림자를 체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직접 맛보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 불교에서 수행을 강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21) 「緣起經」에는 오온(五蘊)과 관련하여 “명(名)은 4무색온(無色蘊)을 말하니, 첫째는 수온(受蘊), 둘째는 상온(想蘊), 셋째는 행온(行蘊), 넷째는 식온(識蘊)이다”라고 되어 있다.

과'라고 불리는 사물이 식 속에 기억된 사과에 대한 상을 업데이트한다. 여기서 사물 유형(名色)의 구성에 기억된 相, 외부 세계 그리고 공동체의 언어 사용 및 관습이 깊이 개입함을 알 수 있지만, 각각의 사물 유형에 어떤 본질적 속성이 존재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sup>22)</sup>

⑤ 六處: 명색에 의해 분류된 감각 영역과 감각 내용을 조건으로 구성되며, 의식을 포함하는 눈·귀·코·혀·몸 등 6개의 감각기관을 의미한다. 특기할 점은 불교에서는 인간의 의식을 일종의 감각기관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이다.

⑥ 觸: 육체인 6개의 감각기관(六根), 감각영역(六境), 감각내용(六識)을 조건으로 하며 이들이 서로 결합하여 이후 감각판단인 受의 조건이 된다.

⑦ 受: 촉에 의해 감수된 감각 내용에 대한 판단으로서, 나쁘고 좋고(苦樂),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不苦不樂) 감각으로 분류되어 이후 愛의 조건이 된다.

⑧ 愛: 수에 의해 분류된 좋은 감각은 갖고 싶고, 나쁜 감각은 피하고 싶은 취사선택의 욕망을 의미한다. 愛는 이후 집착을 의미하는 取의 조건이 된다.

⑨ 取: 애, 욕망으로 인해 과거의 경험을 현재와 미래에 반복하거나 피하려고 하는 집착을 의미하며, 이 집착이 바로 나(我)를 구성하는 조건이다.

⑩ 有: 과거의 좋았던(싫었던) 경험을 한 '과거의 나-대상'에 대한 기억으로 현재에는 없는 그 대상으로 인해 '현재의 나'와 '대상'이 분리(분할)되어 고통을 겪는다. 분리된 그 대상을 '미래의 내'가 다시 경험하기를 갈구할 때, 바로 대상과 즉 주변세계로부터 분리된 '과거의 나-현재의 나-미래의 나'가 시간에 연속적인 존재로 간주되어 나(我)라는 개체를 비로소 구성한다. 즉 주변세계인 공간으로부터 분리되고 시간적으로 연속된 개체가 바로 有로서 생·노사의 조건 즉 생·노사의 주체가 된다. 이런 나의 개체화 과정이 주변 세계에 투사되어 사물들 역시 개체화된다.

주목할 점은 개체의 도입에 인간의 욕망과 집착,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서

22) '놀이'라는 일반명사를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놀이들 간에 '모든 놀이들이 갖고 있고 또 놀이들만이 갖는 어떤 속성, 즉 본질'은 없으며 다만 놀이들 간에 비슷함만이 존재한다는 비트겐슈타인의 가족유사성의 발생기작이라고 볼 수 있다.

와 무지가 개입된다는 점인데, 이는 다른 종교나 사상에서는 찾기 힘들다. 이런 개체화의 조건을 압축한 것이 貪·瞋·痴이며 이를 불교에서 三毒이라 일컫는 것도 개체화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선종의 일화 ‘馬祖野鴨’은 일상에서 사물에 투사된 개체화와 관련된 스승과 제자의 대화이다.

마조대사가 백장과 함께 길을 가다가 들오리가 날아가는(飛過) 것을 보았다. 마대사가 말하기를, “저것이 무엇이나?” 백장이 말했다. “들오리입니다.” 마대사가 말하였다. “어디로 갔느냐?” 백장이 말했다. “날아가 버렸습니다(飛過去也).” 그러자 마대사는 백장의 코를 잡아 비틀었다. 백장이 아파 비명을 질렀다. 마대사가 말했다. “어째서 날아가 버린 것이냐(何曾飛去)?”<sup>23)</sup>

①生·②老死: 시공에 연장된 개체의 출현을 의미하는 生은 이후 老死의 조건이며 늙어 죽음은 인간이 피하고자 하는,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대표적 공통이다.

석가가 십이연기를 설한 목적은 『아함경』 등의 문헌을 볼 때 명백하다. ‘무명을 조건으로 하여(緣하여) 행이 생기고, 행을 조건으로 하여 식이 생기고… 생을 조건으로 하여 노사가 생긴다’고 하지만, 동시에 만일 무명이 멀하면 행도 멀하고, 행이 멀하면 식도 멀하고… 생이 멀하면 노사도 멀한다’고 설하면서 연기 공식을 십이연기 자체에 적용하고 있다. 여기서 생멸이란 인간 마음의 작용에 기인하며, 인간의 마음 혹은 이 글에서는 인간의 조건에 대한 성찰과 행위로서 생로병사의 고통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석가의 가르침 중 ‘四聖諦’라 칭하는 苦·集·滅·道の 내용이다.

불교가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無我和 함께 만물이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

23) 『碧巖錄』, 百丈野鴨子 “馬大師與百丈行次 見野鴨子飛過。大師云 是什麼 丈云 野鴨子。大師云 什麼處去也 丈云 飛過去也。大師遂扭百丈鼻頭 丈作忍痛聲 大師云 何曾飛去。” 마조도일(馬祖道一, 709-788) 선사는 혜능(638-713)의 제자인 남악희양(南岳懷讓, 677-744)의 제자이고, 백장회해(百丈懷海, 720-814)는 바로 마조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다.

넌(一切唯心造) 허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은 잘 알려져 있다.

## V. 연기와 자유학예교육의 연계

그러나 불교와 자유학예와의 연계가 주제인 이 글에서 더 중요한 점은 기억, 감정, 언어, 욕망, 예측과 함께 논리를 사용하는 이성 등등 인간의 조건들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개입된다는 점과 함께, 나를 포함한 상식 세계의 사물들인 개체의 조건들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바꿔 말해 개체란 주어진 실재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 의해 구성된 것이라는 점을 십이연기는 보여주고 있다.

다른 한편 양자역학은 이 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불교의 연기설은 상식 세계의 개체들이 인간의 조건에 의해 구성되었고 이 세계 자체에는 경계가 없음을 보여주었다고 해도, 양자역학이 다루는 미시세계에서 관찰 장치는 인간의 욕망이나 집착과는 무관하다. 불교와 양자역학을 연계시키려는 시도는 과거에 기독교라는 종교가 과학을 지배하려는 시도와 비슷하지 않은가? 실제로 십이연기에 의한 개체의 재구성에서 주변 세계로부터 나를 ‘오려내는’ 분할, 즉 경계의 도입에 필요한 물리적 조건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바로 이 점에서 불교의 연기설과 양자역학의 존재론에 대한 탐구가 더 필요하다.<sup>24)</sup> 즉 학문의 토대로서 존재론의 제공이라는 자유학예의 역할을 연기가 담당하기 위해서는 더 갈 길이 남아 있다.

---

24) 거시세계의 시각 영역 혹은 시각적 이미지에서는 빛이 만들어내는 색과 명암의 차이가 경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이점은 디지털 사진에서 나뭇가지와 주변 대기의 경계를 계속 확대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우리가 주변 세계로부터 분명히 분리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물의 경계는 빛의 해상도에 의존한다. 그렇다면 미시세계에서 경계의 수단인 빛은 무엇으로 주변 세계로부터 분리할 수 있을까? 바로 이 생각이 하이젠베르크로 하여금 그의 유명한 불확실성의 원리를 발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 점과 경계 비판으로서 연기설과 연결시키려는 작업은 아직 충분히 시도되지 않았다.

다른 한편 이런 인간의 조건들은 상식 세계에서 인간이 삶을 영위하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욕망과 집착의 근원이자 사물을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선입관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행복한 삶에 없을 수도 없다. 기억은 학습과 거의 같은 의미를 지닐 만큼 중요한 능력이지만 기억이 현실을 덮어 왜곡시킬 수도 있다. 언어는 의사소통을 위한 인간의 특별한 조건이며 동시에 사물에 대한 기술(記述)의 도구이지만, 언어가 의사를 왜곡하고 사물에 대한 허상의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또 허위의 전달수단이기도 하다. 욕망은 보통 부정적으로 간주되지만,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며, 희망, 기원, 소망 등은 욕망과 가족유사성을 갖는 개념의 스펙트럼에 속한다.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인간 사회에서 불가피하지만 과거에 대한 기억과 미래에 대한 예측 사이에서 우리가 사는 유일한 현실인 현재가 사라질 수 있다. 이성적 판단의 대표적 방법론인 논리적 추론은 판단과 설득의 강력한 도구이지만 사물의 어떤 부분에 대하여 어떤 전제를 갖고 추론을 하느냐에 따라 전혀 반대의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믿음과 신념은 어려운 시기에 절망을 이겨내는 의지처이지만 자신의 믿음과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강압과 폭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연기는 여기서 ‘인간의 조건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즉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자유교육의 문제와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마음 속의 인간의 조건들이 때로는 건설적이며 긍정적으로, 때로는 파괴적이며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불교 밖에서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침략 전쟁이 인간의 명예욕, 과대망상 그리고 적대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증오와 전쟁을 부정적으로 보고 자비와 사랑 그리고 평화를 윤리적으로 긍정적임을 강조하지만, 이 역시 이것과 저것을 나눈다는 점에서 분별과 가치판단이 갖는 모든 문제를 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조건이 갖는 이중성이 단순히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구별, 또는 배운 것의 실천만으로 해소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순진한 발상이다.<sup>25)</sup> 도덕적 규범, 종교적 신념이 상황에 따라서 강압

이나 폭력으로 전환된 사례는 역사적으로 적지 않다. 불교는 여기서 매우 급진적이지만 근본적인 방법론을 제안하고 있으며 그것이 갖는 교육학적 의미도 적지 않다. 이점을 경계 긋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관점(perspective)<sup>26)</sup>을 다루는 3가지 경우를 자유교육과 관련 살펴보기로 한다.

1) 경계의 임의성: 경계 긋기의 불가능성은 경계의 임의성을 함축한다. 이처럼 임의적인 경계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이유는 경계를 긋는 사람의 관점이 마치 색안경과 같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경계의 임의성은 학문들에게도 적용되어 기존의 학문 분류가 특정한 필요에 부응하더라도 필연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점은 학문의 세분화, 전문화는 물론 이합집산과 재분류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분명하다. 즉 학문의 세분화 역시 임의성을 갖고 있으며 이때 사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새로운 요구가 생길 경우 학문 간의 경계를 넘을 필요가 생기는 것은 연기의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당연하다.

2) 경계의 이동으로서 융합 연구·교육: 주변 세계의 분할·분별 및 사물의 분류는 특정한 관점, 관습, 언어 및 가치판단과 결부되어 있으나 경계의 임의성으로 동일한 사물도 관점의 이동(shifting perspective)으로 새로운 측면이 드러날 수 있다. 이때 사물 A에 결부된 관습적 관점을 버리고 A를 사물 B의 관점 혹은 맥락에 넣을 경우를 흔히 융합이라고 부른다. 『莊子』에 나오는 송나라 사람의 약방문 에피소드가 바로 이런 경우이다. 즉 손트지 않는 약을 숨 빼는 일이라는 관점 혹은 맥락으로부터 떼어내어 水戰의 맥락에 집어 넣은 경우이다.<sup>27)</sup>

이 관점의 이동을 학생 스스로 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는 흔히 창의성 교

25) 『論語』「泰伯」에 “공자가 말하기를 (….) 사람으로서 인하지 못한 것을 너무 심히 미워하는 것도 난을 일으킨다(子曰 (….) 人而不仁 疾之已甚 亂也).”고 한 것이 바로 이를 말한다.

26) 경계를 긋기 위해서는 인식 주체의 특정한 관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과 추함을 나눌 경우, 인식 주체의 관점이 개입한다.

27) 마르셀 뒤샹은 남자 소변기를 화장실의 맥락에서 떼어내어 미술품 전시장에 넣음으로써 예술품으로 변화시켰다. 관점의 이동을 이용한 융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육이라고 부른다.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중 교배와 흡사하다. 물론 모든 이중 교배가 성공하지 않듯이 모든 관점 이동이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또 고착된 관점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것도 아니다.<sup>28)</sup>

3) 여러 관점들의 통합 연구·교육: 연기공식이 말하는 이것과 저것의 상호존성은 확장될 수 있다. 즉 한 전체 A는 이를 포함한 또 다른 전체 B의 부분이고, A와 B는 내부적으로 다시 분할될 수 있다. 이런 과정의 반복은 세계의 존재들의 광범위한 상호연결(interconnection)을 의미한다. 불교의 비유로서 인드라의 망(Indra's net)은 상호연결의 교차점에 걸린 한 구슬에 다른 모든 구슬이 비친다는 것으로, 상식적인 인과관계도 인과망으로 확대될 수 있다. 이처럼 상호연결은 동시에 다중 분할을 의미하고 이는 다양한 관점(multiple perspectives)이 개입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로 상호연결된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태도이지만, 여기에도 역시 유연한 사고, 타인의 관점에 대한 수용 태세 등등 수많은 ‘파생 역량’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관점의 통합 능력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서로 다양한 가치관과 이념을 갖는 시민들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기도 하다.

4) 관점의 제거로서 무념(無念)의 교육적 활용: 무명에서 시작하여 생과 노사라는 고통에 이르는 과정을 재구성한 십이연기에는 마음의 여러 가지 활동 즉 인간의 조건들인 기억, 감정, 욕망, 예측, 언어, 이성, 믿음 등이 관계한다. 이러한 인간의 조건들은 인간에게는 필수불가결한 마음의 행위들이지만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모두를 갖고 있어 이를 다스리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이런 이유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윤리적 규범의 도입은 필연적이거나, 이 윤리적 규범 역시 특정한 관점에서 선과 악의 분할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규범에의 집착은 강압과 폭력을 야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법은 분할 행위와 연계된 특정한 관점 혹은 다양한 관점 모두를 멈추는

---

28) 미술사와 사기꾼 역시 창의적으로 사고한다. 전자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지만, 후자는 창의적으로 범죄행위를 구상하는 사람이다.

것이다. 일종의 마음의 리셋팅, 리부팅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멈춤 혹은 비움을 불교에서는 定, 無念 등으로 불렀다.

불교는 이런 정적이고 수동적인 대응을 넘어서 인간의 조건들을 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이들이 갖는 문제점을 해법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육조 혜능은 그의 일대기와 가르침의 내용을 기술한 『六祖壇經(敦煌本)』에서 定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定과 慧는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定은 慧의 몸이요 慧는 곧 定의 씬이다(定慧體不二 卽定是慧體 卽慧是定用).”(定慧品) 또한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도 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無念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 “순간순간 생각할 때에 모든 법 위에 머무름이 없나니, 만약 한 생각이라도 머무르면 생각마다 머무는 것이므로 얽매임이라고 부른다. 만약 모든 법 위에 순간순간 생각이 머무르지 아니하면 곧 얽매임이 없는 것이다.”(六祖壇經, 無念品) 그러니까 혜능에 의하면 무념은 생각이 없음이 아니라 ‘머무르지 않음’으로서 그가 출간 전에 우연히 듣고 마음이 열렸다는 금강경의 구절 ‘應無所住而生其心’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무념이라는 것이 생각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관습적 관점에서 벗어나 ‘여기 지금의 구체적인 상황’에 가장 적절한 대응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sup>29)</sup> 지금까지 고등교육 혹은 서양의 교육 개념에서 간과되어왔던 것은 바로 불교적 무념의 교육적 효과이다. 물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자유교육의 대상은 종교와 무관한 학생이다. 그러나 교육을 ‘지식과 정보 그리고 윤리적 규범을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에 옮긴다’는 관점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두 가지 예를 들겠다.

미국의 Rothblatt 교수는 뉴맨의 『The idea of a university』에서 다음의 구절을 인용하면서, 자유교육의 경우 Input과 Output 간에 관계가 느슨하다고

---

29) 여기에는 불교의 혹은 동양사상 일반의 인간의 본성에 대한 믿음이 있다. 모든 관점을 제거할 때 드러나는 인간의 본마음이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방법·관점을 찾아낸다는 것이다.

말한 바 있다.(Rothblatt, 2021 1-2, 6) “바질과 줄리앙은 아테네의 학교에서 동료 학생들이었다. 그런데 한 명은 기독교 교회의 성자가 되었고, 다른 한편 줄리앙은 쉬지 않고 기독교를 조롱하는 적이었다.”(Newman, 2008, §212)

바질과 줄리앙은 동일한 교육적 배경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이유로, 기독교에 대한 두 사람의 관점은 완전히 다르다. 즉 자유교육의 경우 동일한 Input에도 불구하고 여러 종류의 관점들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올 여유가 있으며, Output은 매우 부정적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업 교육의 경우, 학교에서 배운 것과 이후 그가 직업 세계에서 하는 일에는 강한 연속성이 있으며, 따라서 Input과 Output의 관계도, 또 학습과 직업과 결부되어 있는 관점도 변함없이 견고하다.

그렇다면 바질의 행태는 이해 가능하고 줄리앙의 행태는 이해 불가능할까? 그렇지 않다. 아마도 양자의 행태 모두 이해 가능할 것이다. 왜? 바질의 관점과 줄리앙의 관점에서 볼 때 그러하다. 심지어 ‘그들의 관점에서는 자신의 관점이’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자유교육이 직업교육과는 달리 Input과 Output 간에 느슨한 관계만이 존재한다는 점은 그 윤리적 가치를 떠나 본질적인 측면으로 간주될 수 있고, 이 느슨한 관계 사이에 각자의 다른 관점이, 때로는 파국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관점이 들어올 수도 있다면, 여기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이 직업교육처럼 Input과 Output 간의 관계를 견고하게 만드는 데에 있지 않음은 분명하다.

또 다른 예는 2023년 10월 27일 한국 아주대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도쿄대의 코다마 시게오(小玉重夫) 교수가 제시한 ‘파क्स-아이히만 패러독스’이다.

이하에서 검토할 것은 시티즌십 교육의 운영에 따라다니는 모종의 역설이 있다는 점이다. 교육철학자 거트 비에스타는 그것을 “파क्स-아이히만 패러독스”라고 부른다(Biesta 2022).

파크스는 1950년대 미국에서 버스 승차 중 운전자의 지시를 어기고 백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는 행동으로 체포돼 미국 전역으로 민권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한 인물이다. 아이히만은 나치 정권 하에서 우수한 관료로 유대인 강제 이송에 종사하며 유대인 대량학살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전후 이스라엘에서 처형됐으며, 한나 아렌트에 의해 악의 평범성을 보여준 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비에스타에 따르면,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아이히만은 성공적인 교육을 통해 빚어진 인물이고 파크스는 그렇지 못한 데서 만들어진 인물이겠지만, 인간의 주체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와는 반대된다는 점에 패러독스(역설)가 있다”고 말했다. 즉, 사회의 변혁을 일으키는 정치적 주체로서의 시민은 교육의 성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실패에 의해서 육성된다는 역설이다.(아주대학교, 2023, 67)

위의 예에서 ‘교육의 성공 혹은 실패’의 의미가 “효과적인 수업을 통해 학습이 잘 이루어진다는 관점”임은 명백하며, 이는 주로 서양의 교육적 관점이다. 만일 우리가 ‘배운 것을 잊어버리고 사물을 상황에 따라 다시 보는 능력’을 포함시킬 경우, 즉 위에서 ‘무념’이라고 불렀던 사고의 유연성 혹은 마음의 리부팅의 관점에서 본다면 파크스가 교육의 성공 사례이고, 아이히만의 경우는 교육의 실패라고 할 수 있다. 바꿔 말해 비에스타가 생각하는 교육의 의미는 과거의 경험 혹은 배운 정보와 행위 방식을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한다는 것으로 주로 직업 교육이니 훈육, 지시에 해당하는 것이며, 자유학예교육의 경우 배움 자체가 그렇지 않다. 무념의 중요성은 줄리앙의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종교적, 정치적, 인종적 관점과 이런 관점의 교육에 의한 대량 살육 앞에서 그가 배운 것을 잊고 인간의 본마음으로 대응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분명한 점은 무념이 갖는 다양한 교육적 의미이다. 우선 기억, 감정, 믿음 등등 인간의 조건들이 야기하는 파국을 막아줄 수 있는 윤리적 안전지대이자, 관점 이동(無住)과 다양한 관점의 종합이 시작되는 활동의 장(場)이라는 점이다.<sup>30)</sup> 특히 무념은 다양한 가치판단 즉 특정한 관점

30) 朱子は『大學』에 대한 주석인『大學集註』에서 인간의 본성을 의미하는明德에 대하여 “明

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사실확인-가치판단-결정’이라는 의사 결정의 출발점으로 간주될 필요가 있다.

## VI. 결론

이 세계가 서로 독립적인 사물로 분할될 수 없다는 경계 비판이 핵심인 불교의 연기설은 동시에 인간의 조건을 이용하여 나를 포함한 개체를 재구성할 수 있었다. 이것은 모든 존재는 다른 무엇인가를 존재 조건으로 갖고 있음을 의미하며, 조건적 존재론은 학문의 새로운 토대, 새로운 형이상학으로서 활용될 수 있으며 존재론은 자유학예의 오래된 분야이다. 다른 한편 인간의 경계 곳기에는 항상 특정한 관점이 결부되어 있으며, 우리는 관점 다루기와 제어로서 융합 연구·교육과 통합 연구·교육의 의미를 불교의 연기설로부터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런 관점 제어의 하나로서 무념은 인간의 조건이 갖는 위험성에 대응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가치판단 이전에 사실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태도를 강조한다. 또 무념은 인간의 본성이기에 교육 이전에 누구에게나 이미 순간순간 활동하고 있으며, 이를 스스로 성찰하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은 바로 자유학예교육에 속한다. 이런 점에서 교육은 지식을 배우고 기억하고 비슷한 상황에서 사용하고 실천함을 의미할 뿐 아니라, 항상 본성으로 돌아가는 즉 교육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마음을 리셋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불교는 철학의 하나로서 자유학예에 속할 뿐더러, 오래전부터 자유학예교육의 지향점으로 간주 되는 통합교육을 불교의 연기설이 자연스럽게 정당화할 수 있고, 동시에 서양적 교육의 개념을 확장하여 윤리적 측면으로 고양시킬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또한 통합교육을

---

德이란 사람이 하늘에서 얻어 虛靈不昧하여 衆理를 갖추어 萬事に 能한 것이다. 단 氣稟이 구속하고, 人欲이 가리어 혼미해진다. 그러나 그 본체의 밝음은 아직껏 쉬지 않는다.”라고 기술하였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 단지 깨끗한 상태를 넘어 교육을 받아 의식되지는 않지만 우리 몸 어디에 저장된 모든 이치(衆理)가 구체적인 상황에 처하면 가장 적절하게 변형되어 대응한다는 것이다.

통해 자유교육을 실행할 경우, ‘불교’라는 명칭 없이 불교의 핵심 교리의 일부를 실천으로 옮길 수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 〈참고문헌〉

- Anton Zeilinger, “Experiment and Paradox in Quantum Physics”, In: Zara Houshmand, Arthur Zajonc (editor), 『The New Physics and Cosmology : Dialogues with the Dalai Lama』, New York :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1-30
- Edward MacCurdy(editor), 『The Notebooks of Leonardo Da Vinci』. Reynal & Hitchcock; 2nd edition 1938, 75-76
- Finkelstein DR. Emptiness and relativity. In: Wallace A (editor). 『Buddhism and science』.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2003
- Kimball, Bruce A, 1986, 『Orators & Philosophers』, Teachers College Press.
- Lev Vaidman, “Many-Worlds Interpretation of Quantum Mechanics”, In: Stanford Encyclopedia of Philosophy, 2002(revised in 2021); “Why the Many-Worlds Interpretation?” Quantum Reports. 2022, 4(3), 264-271
- Michel Bitbol, “Two Aspects of *Śūnyatā* in Quantum Physics: Relativity of Properties and Quantum Non-separability”, In: Siddheshwar Rameshwar Bhatt (editor). 『Quantum Reality and Theory of *Śūnya*』, Springer, 2019, Ch. 6: 93-117
- Newman John Henry, 2008, 『The Idea of a University Defined and Illustrated: In Nine Discourses Delivered to the Catholics of Dublin』, The Project Gutenberg EBook.
- Robert Alan Paul, 『Buddhism and Modern Physics: From Individuals to Relations』, Vol.1:Non-Technical Summary, 2016
- Rolf Torstendahl, “The transformation of professional education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S. Rothblatt, B. Wittrock (editor), 『The European and American university since 1800, Historical and sociological essay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3
- Rothblatt, Sheldon, 2003, 『The Living Arts Comparative and Historical Reflections on Liberal Education』, AAC&U.
- Rovelli Carlo, “Relational quantum mechanics”. International Journal of Theoretical Physics. 1996; 35:1637-57; 『Reality Is Not What It Seems: The Journey to Quantum Gravity』, trans. by Simon Carnell, Erica Segre. Riverhead Books,

2018; 『HELGOLAND Making Sense of The Quantum Revolution』, trans. by  
Simon Carnell, Erica Segre, Riverhead Books, 2021

박병철, 「19세기 영국 대학과 자유교육의 옹호」, 한국교양교육학회, 전국대학교양교육협의회, 『자유교육의 전개, 영국편』, 교양교육총서2, 2023.

박병철, 「자유교육의 성격 다시 보기」, 한국교양교육학회, 『교양교육연구』 제16권 제1호, 2022.02, 23-35.

신종호, 김경희, 윤승준, 홍성기, 『대학 교양교육 국제 비교 연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22.12

아주대학교, 『세계시민교육과 교양교육』, 국제교양교육포럼 자료집, 2023.

홍성기, 「중문의 경계 비판과 데데킨트 절단」, 『불교와 분석철학』, 우리출판사, 2006, 118-139.

## **Buddhism and Liberal Arts Education**

Hong, Sung Ki

(Ajou University, Dasan University College, Emeritus)

In this paper, I will relate Buddhism to the liberal arts as a foundation for scholarship and to liberal education, which is concerned with the question, "How to live?" Therefore, I hope that this will not be seen as terminological confusion when I sometimes refer to the liberal arts and sometimes to liberal education.

The origins of liberal arts are classical Greco-Roman and belong to the Western tradition of higher education. Since the Middle Ages, liberal arts have been sustained by Christianity. At the University of Paris, founded in the 12th century, the liberal arts, especially philosophy, were an important foundation for theology, and for a long time afterward, the liberal arts were inextricably linked to Christianity. This is evidenced by the fact that Newman, a 19th century Catholic cardinal who made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liberal educa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was also a Catholic. As a result, there have been very few attempts to link Buddhism as a religion to liberal education or the liberal arts. However, the scientific revolutions of the 17th and 20th centuries made it difficult for attempts to organize liberal education for or around theology to be justified, and Buddhist interpretations of quantum mechanics that emerged in the early 20th century have appeared in the 21st century. In particular, these attempts reveal the meaning of Buddhism not as a religion, philosophy, art, and way of life, but as a

foundation for science, as it is based on the relational structure of existence rather than on superficial similarities. Here, the role of the liberal arts as a foundation for scholarship and the role of Buddhism as the quintessence of science can be linked.

On the other hand, while it is clear that Buddhism as a philosophy can belong to the liberal arts as a humanity, the understanding of Buddhism's core doctrine of dependent origination and its pedagogical extension suggests the possibility of a reversal of the relationship between Buddhism and the liberal arts: In other words, Shakyamuni's thought on escaping birth and death involves a critique of the structure of existence and the concepts associated with it, as well as a reflection on the human condition, which, together with his emphasis on integrated education, implies a critique of education as the mere acquisition of knowledge. Therefore, Buddhism has the internal structure to justify the integrated nature of liberal education.

**Keyword** ● Buddhism, dependent origination, liberal arts, liberal arts education, integrated education

|| 논문투고일 : 2023. 12. 07. || 심사완료일 : 2023. 12. 18. || 게재확정일 : 2023. 12. 19.